

제1강의(7월6일)



'끝없는 광야'  
아브라함과 이사악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모세오경 Pentateuch (5)

역사서 Historical Books(16)

지혜서와 지서 Wisdombooks & Psalms (7)

예언서 Prophetic books(18)

복음서 (4)

사도행전 Act of Apostle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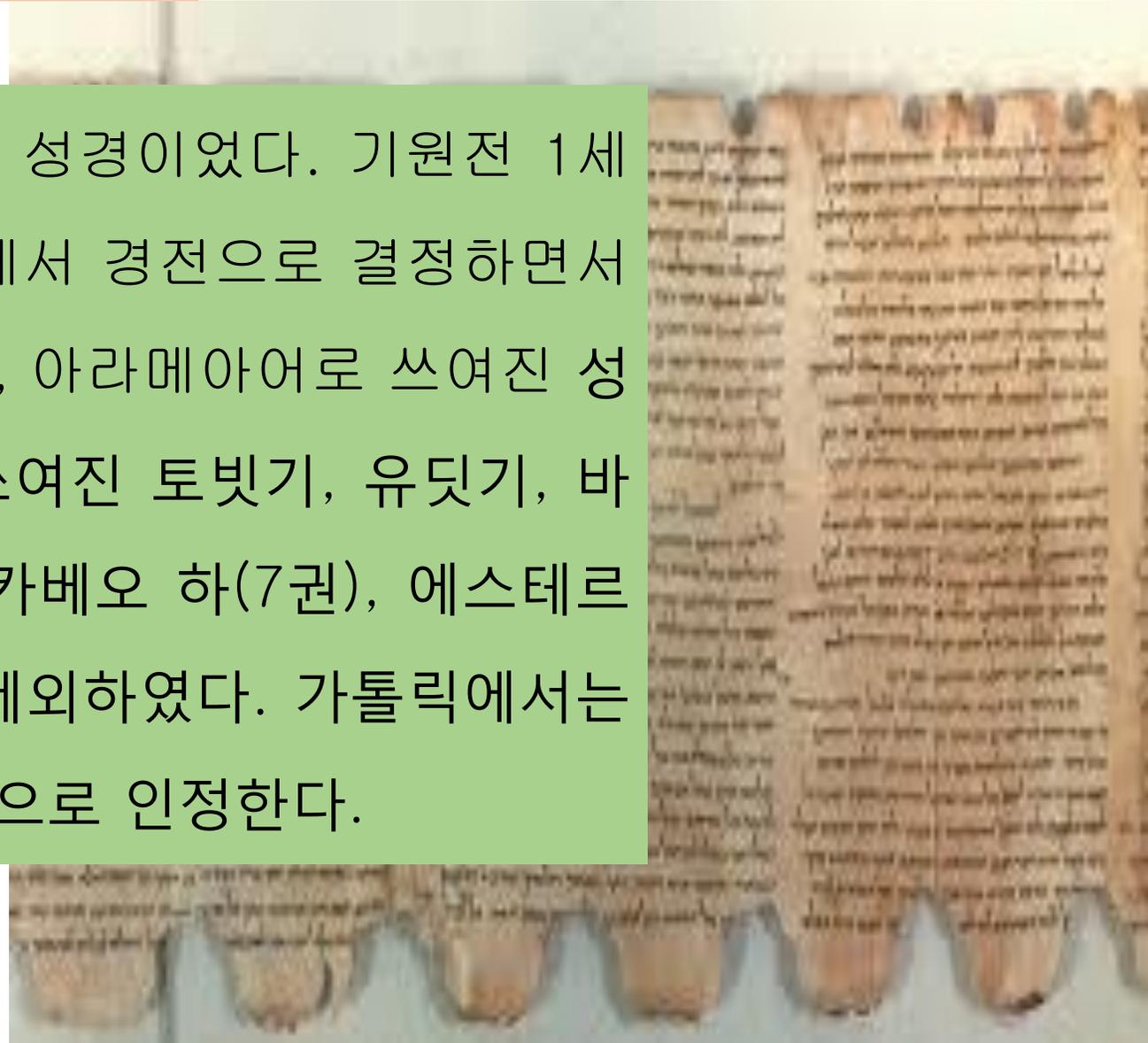
서간들 Letters (21)

묵시록 Revelation (1)

이집트의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명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의 유대인 번역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다’라는 설이 있다. 후에 1세기 경의 저술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 기원 후 1세기에 유다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칠십인 역 성경을 사용했다. 기원후 5세기 성예로니모께서 다시 히브리어, 희랍어 성경을 중심으로 라틴어로 ‘Vulgata’가 번역되어 유럽에는 라틴어 번역으로 바뀌었다.

## 희랍어 번역본 셉뚜아진타(LXX)

칠십인 역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성경이었다. 기원전 1세기에 유대교 양니아(Jamnia) 전체회의에서 경전으로 결정하면서 일곱가지 성경은 제외되었다. 히브리어, 아라메아어로 쓰여진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였다. 희랍어로 쓰여진 토빗기, 유딧기,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7권), 에스테르기 부록, 다니엘 13-14장을 정경에서 제외하였다. 가톨릭에서는 히브리어, 희랍어와 관계없이 모두 정경으로 인정한다.



공동번역성서(共同翻譯聖書)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일치운동' 배경에서 성서공동번역위원회가 1977년에 발족되었고 성서공회가 출판을 맡았다.

루돌프 키텔(Rudolph Kittel)이 편찬한 히브리 성서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 in Biblia Hebraica, 1937년 제3판)과 신약성서 본문은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스(United Bible Societies)가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Greek New Testament, 1966년 제1판)을 참고.

천주교에서는 선종완신부,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문익환 목사가 번역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기독교대한 감리교회에서는 이현주목사가 맞춤법과 교정

공동번역에서 '천주와 하나님'의 차이는 한국 신의 고유 표기인 '하느님'으로 번역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한국 가톨릭은 '하느님'으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있다.

'달님, 별님, 달나라, 하늘나라' 등과 같이 "하늘님"이라고 쓰면 좋을 텐데 "하느님, 따님, 아드님, 바느질, 소나무로 되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두님, 세님 (서수에다 '님' 을 붙일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부터 "하느님"이라고 발음하고 쪽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 하느-님

### 1. 종교 일반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됨.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림. 하늘. 천공(天公). 천제(天帝). 현제(玄帝). 황천.

### 2.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스도교에서 신봉하는 유일신. 천지(天地)의 창조주(創造主)이며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섭리로서 다스림. 상주(上主). 신(神). 천주(天主). 하나님.

##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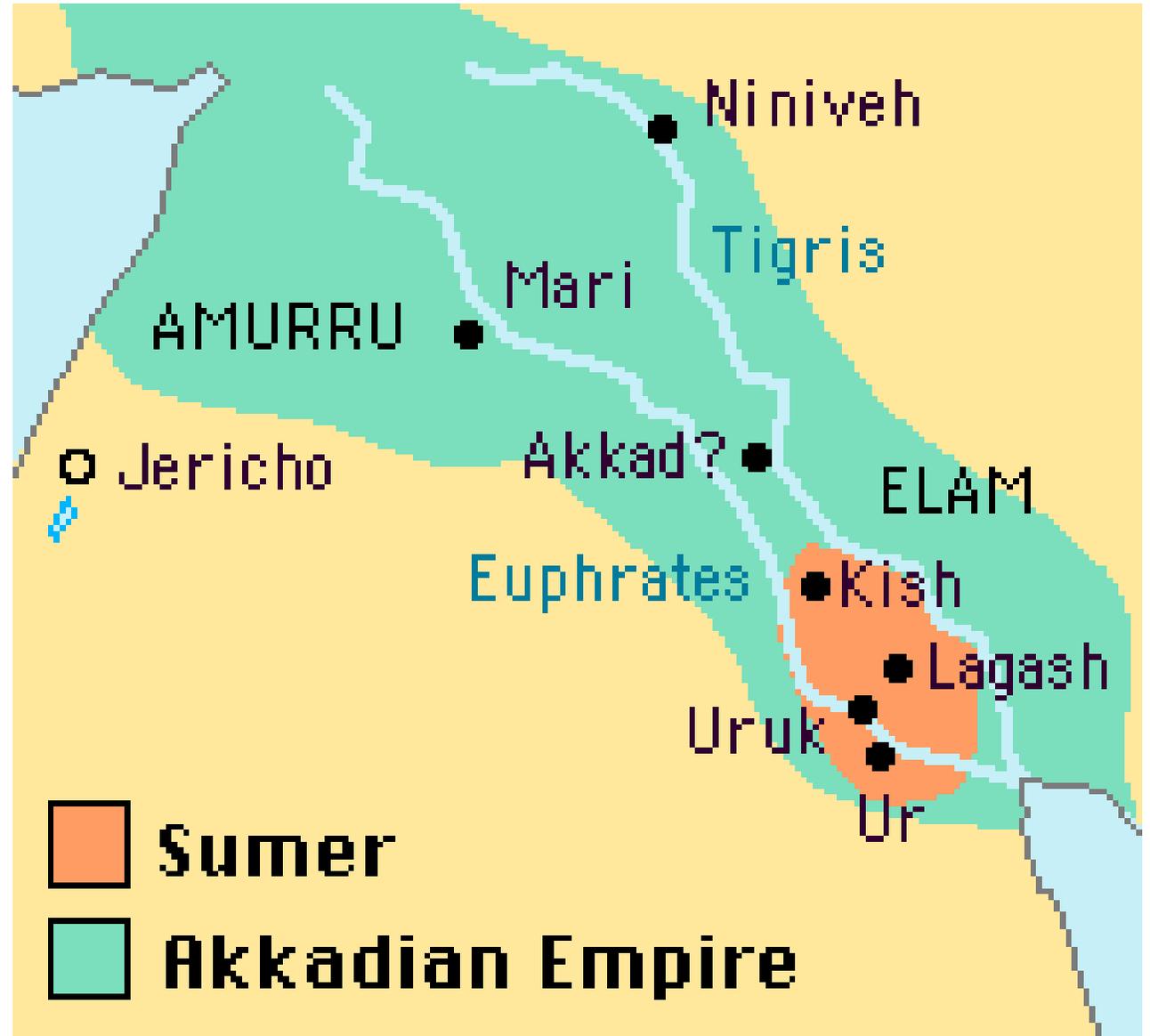
‘하느님’을 개신교(改新敎)에서 유일신(唯一神)의 뜻을 살려 이르는 말.



우르의 지구라트 (Ur)의 유적



바빌론 마르둑 지구라트



수메르 신화에서 달의 신 난나(Nanna)를 위한 거대한 지구라트가 현재에도 우르의 유적으로 남아있다. 이 지구라트는 벽돌로 건축되었으며 두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아래층의 벽돌은 역청으로 이어 붙였으며 위층의 벽돌을 잇는 데에는 회반죽을 사용하였다. 우르는 수메르어로 우림이라 불렸다. 특히 왕족무덤의 발견으로 문화의 화려함이 확인되었다. 이 무덤에서 귀금속과 다양한 보석으로 만든 많은 양의 자료를 담고 있다. 우르 (Ur)는 노예, 농부, 장인, 의사, 서기관, 제사장을 포함한 계층화 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된다.

## 수메르 종교

수메르인은 원래 다신교를 믿었는데, 수메르인의 종교의 신들은 천상과 지상의 힘들이 의인화된 신들이었다. 기원전 제3천년기(3000~2001 BC) 중반에, 수메르의 신들은 더 인간중심적이 되었고 "자연의 신들이 도시의 신들로 변형되었다". 수메르인은 엔키(Enki)와 인안나(Inanna)와 같은 신들은 하늘의 신인 안(An)이나 수메르 판테온의 최고신인 엔릴(Enlil)로부터 각자의 계급과 힘과 지식을 부여 받는다고 여겼다

### <수메르 대표적 신들>

난나(Nanna): 남신. 달의 신. 도시 국가 우르의 수호신들 중 하나

난나(Nanna)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아카드와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 달의 신이었다. 난나는 수메르 신이며 엔릴과 닐릴의 아들이며 셈족 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무(Nammu): 여신. 태초의 바다인 엔구르(Engur)로, 남신 안(하늘)과 여신 키(대지)와 다른 최초의 남신과 여신들을 낳았다. 남무는 최종적으로 여신 티아마트(Tiamat)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닌갈(Ningal): 여신. 달의 신 난나의 부인

안(An): 하늘의 신, 창공(firmament) 그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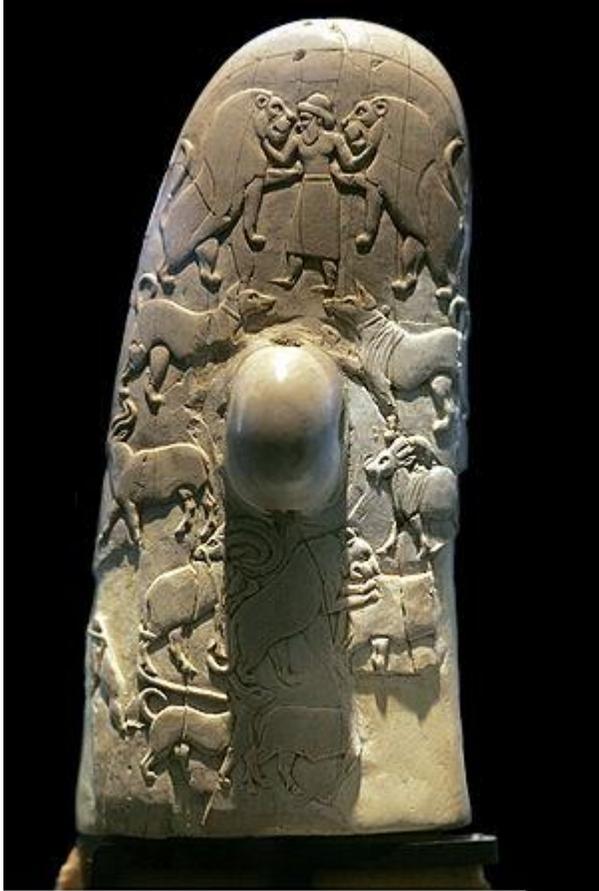
엔릴(Enlil): 공기의 신으로 릴(Lil)은 공기를 뜻한다. 도시 국가 니푸르(Nippur)의 수호신

엔키(Enki): 담수의 바다, 남성의 생식력 그리고 지식의 신. 도시 국가 에리두의 수호신



(Utu, giant alien god of the Sun symbol)

***Nannar, god of the moon crescent***



우르의 난나르(Nannar)신, 아눈나키(Anunnaki)신이 기르는 가축들, 인간은 이 가축들을 위해서 노동을 함



Ur 의 왕 무덤에서 발견된 적색 석회석, 암갈색, 청금석 및 조개로 이루어졌다. 당시 우르 왕들, 청갈 모자이크 표준은 적색 석회석, 암갈색, 청금석 및 조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화"측면은 위로, 음악 및 번영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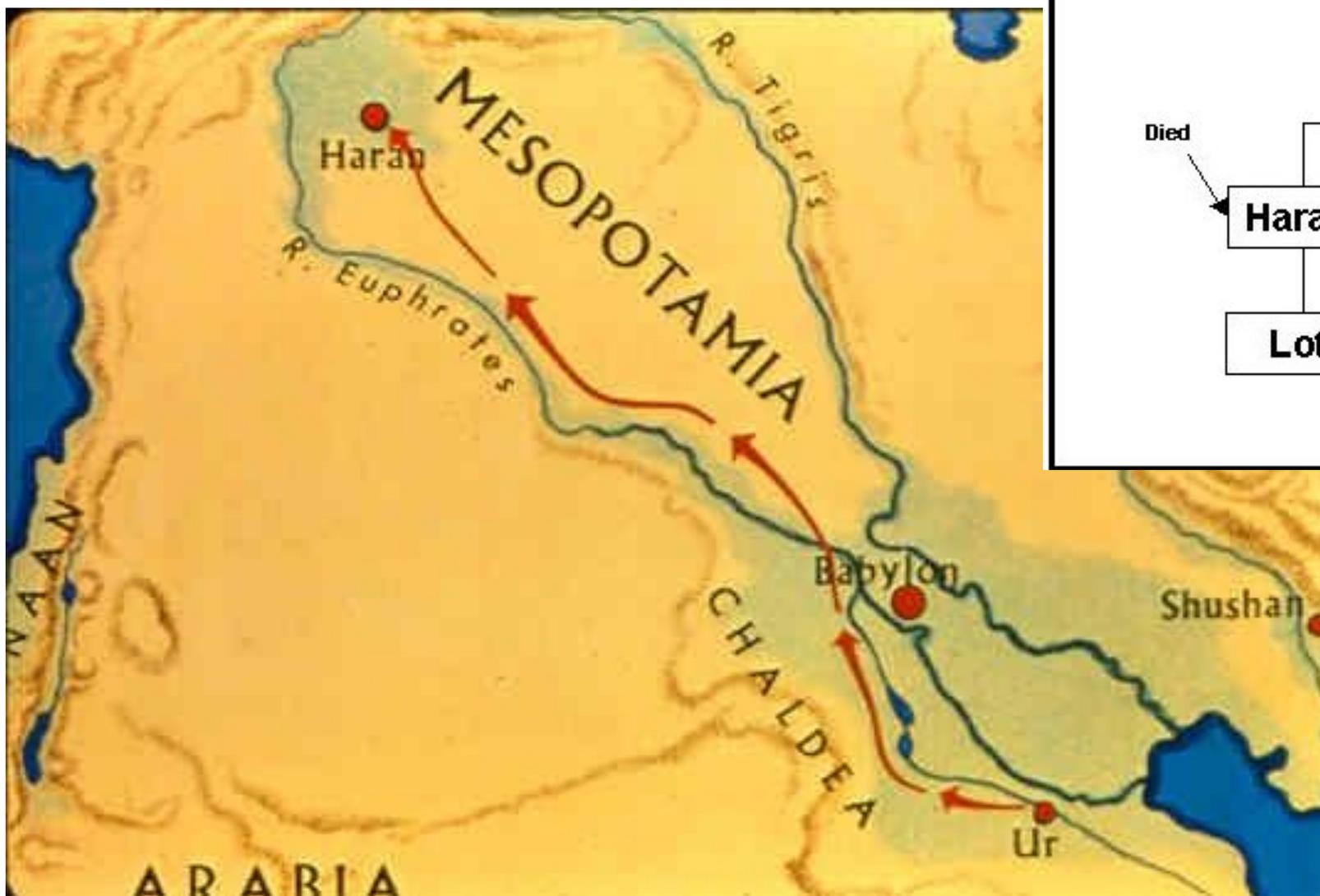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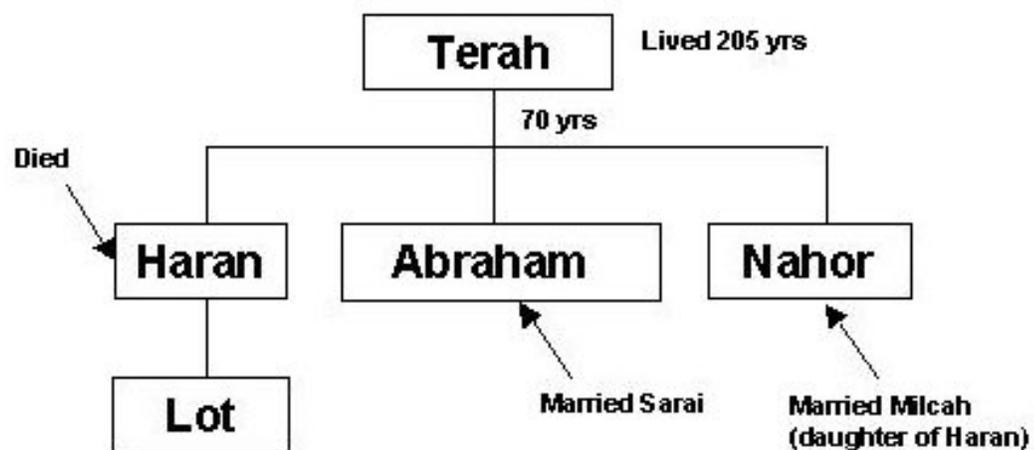
## <테라와 아브람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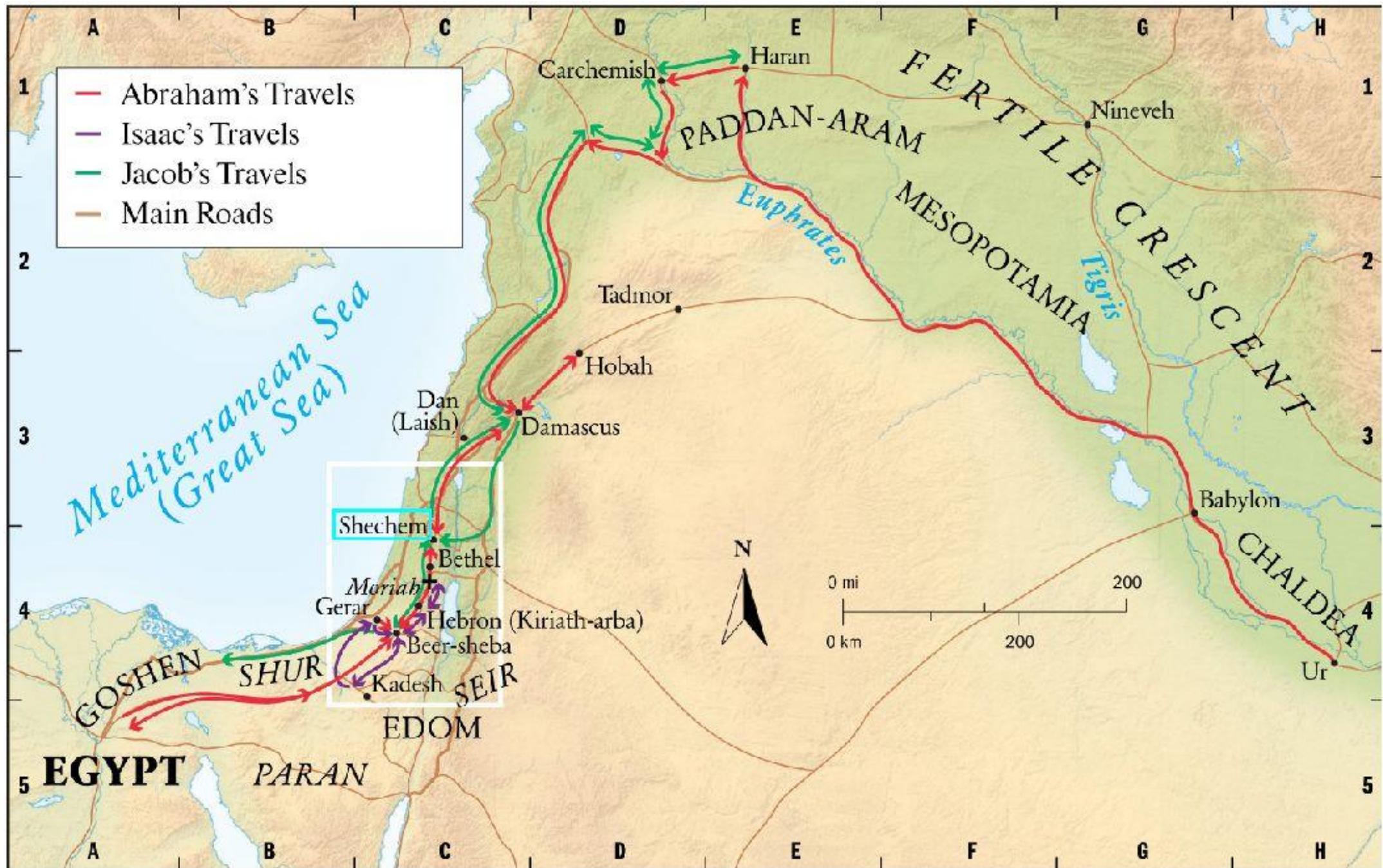
“나호르는 이십구 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창세 11,24)

“테라는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창세 11,27)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창세 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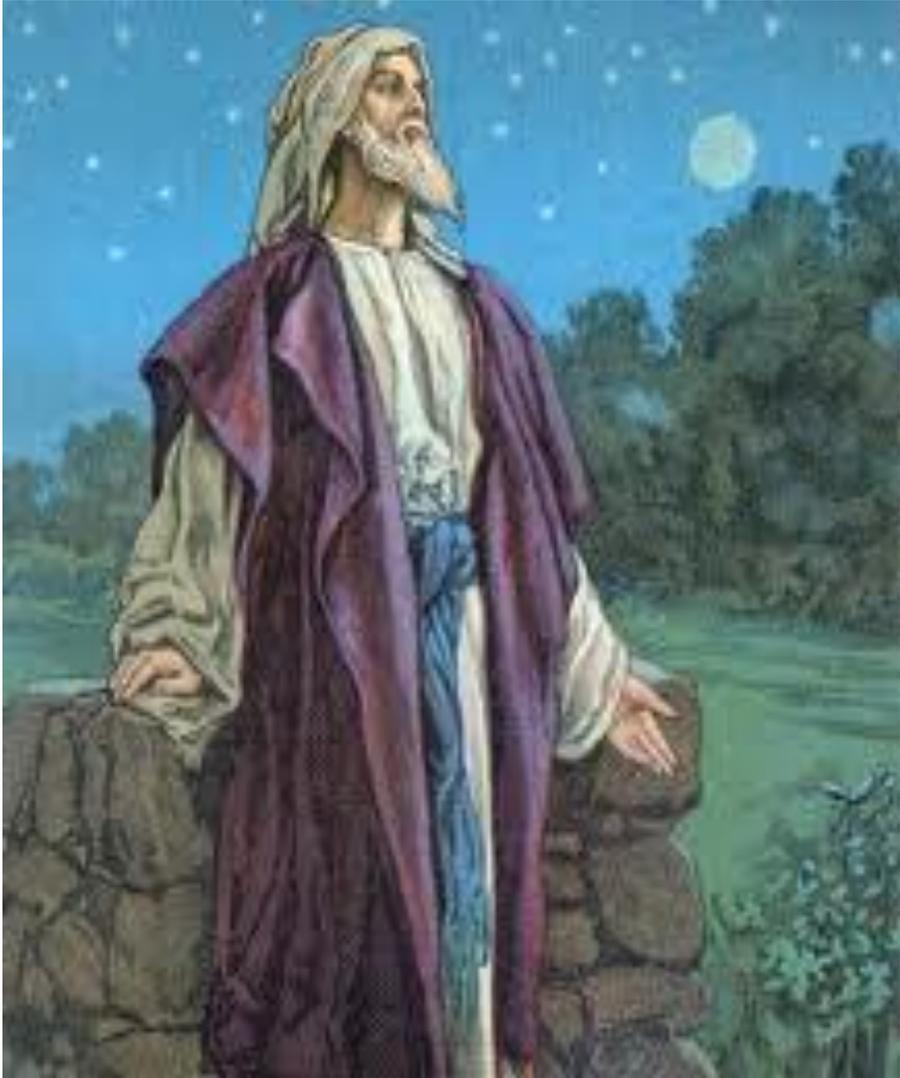
## Terah's Summary Genealogy (Genesis 11:26-32)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이백오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창세 11,31-32)





THE CALL OF ABRAHAM

bible-truth.org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 12,1-3)



“아브람은 주님께서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일흔다섯 살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창세 12,4-5)

아브라함의 카라반, James Tissot 1896-1902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켄의 성소 곧 모레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 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 갔다.”(창세 12,6-9)

“이런 일들이 있는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렸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창세 15,1-2)

“아브람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창세 15,3-4)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창세 15,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창세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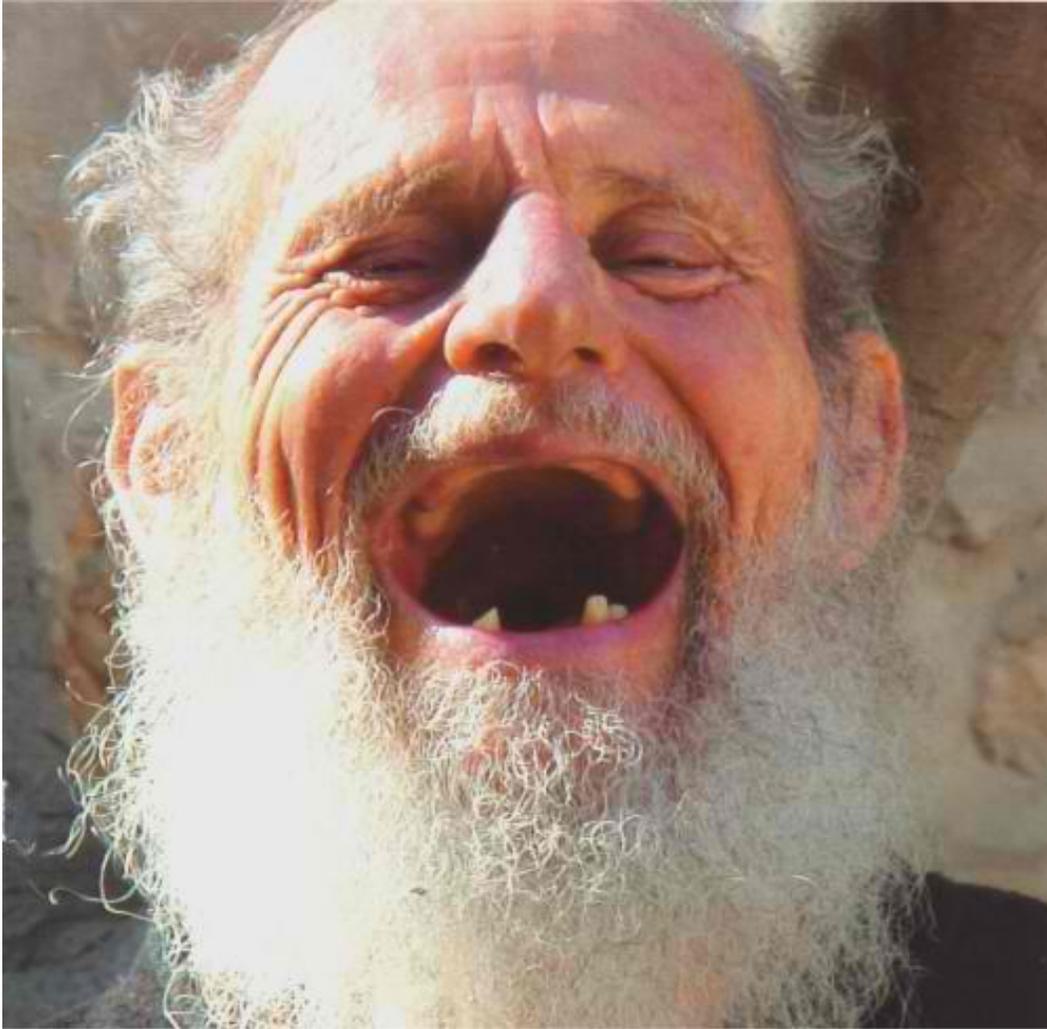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창세 15,17-18)



“아브람의 나이가 아흔아홉 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창세 17,1-2)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창세 17,5)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 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백 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아흔 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창세 17,15-17)



아흔 아홉 살이면 새로운  
생명과 새 이름에서는 너  
무 늙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넘  
어 하느님의 계획은 멈추  
시지 않습니다.

Living the Lectionary: A daily devotion on the lessons from the revised common lectionary



람브란트(Rembrandt)의 세천사와 아브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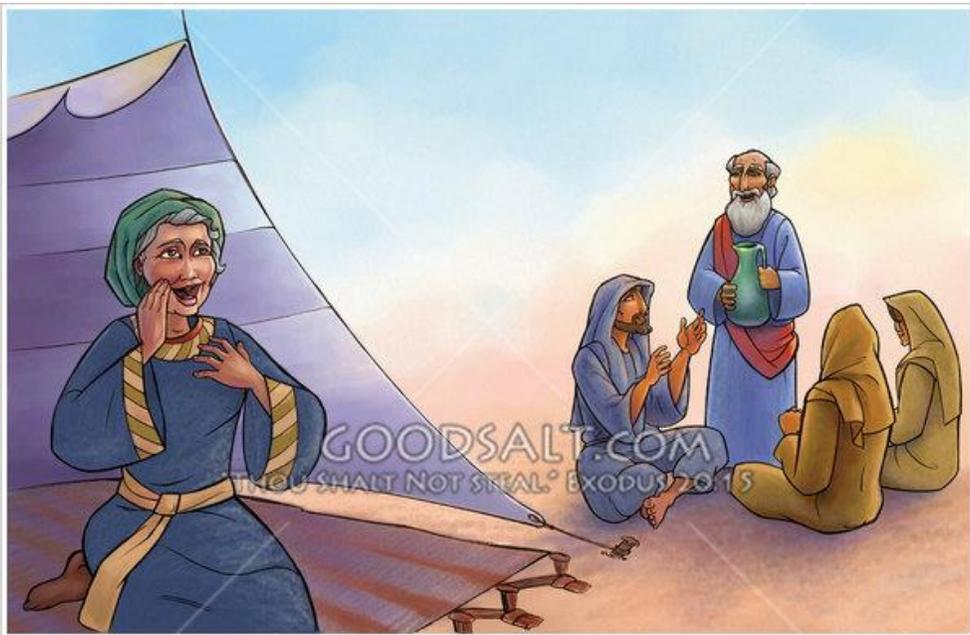
“주님께서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창세 18,1)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창세 18,9)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창세 18,10)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 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 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창세18,12-14)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18,15)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 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다.”(창세21,1-3)



“이런 일들이 있는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야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 22,1-2)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악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창세 22,7-8)

וַיֹּאמֶר אֲבִרְהָם

אֱלֹהִים יְרֵאֵה-לוֹ

הַשָּׂה לְעֹלָה בְּנִי



Caravaggio's "The Binding of Isaac," oil on canvas. [Public Domain]



Marc Zakharovich Chagall (6 July 1887 – 28 March 1985)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창세 22,11-12)

ד' !קרא אברהם שם-המקום ההוא, !הוה !ראה, אשר אמר היום, בְּהַר !הוה !רא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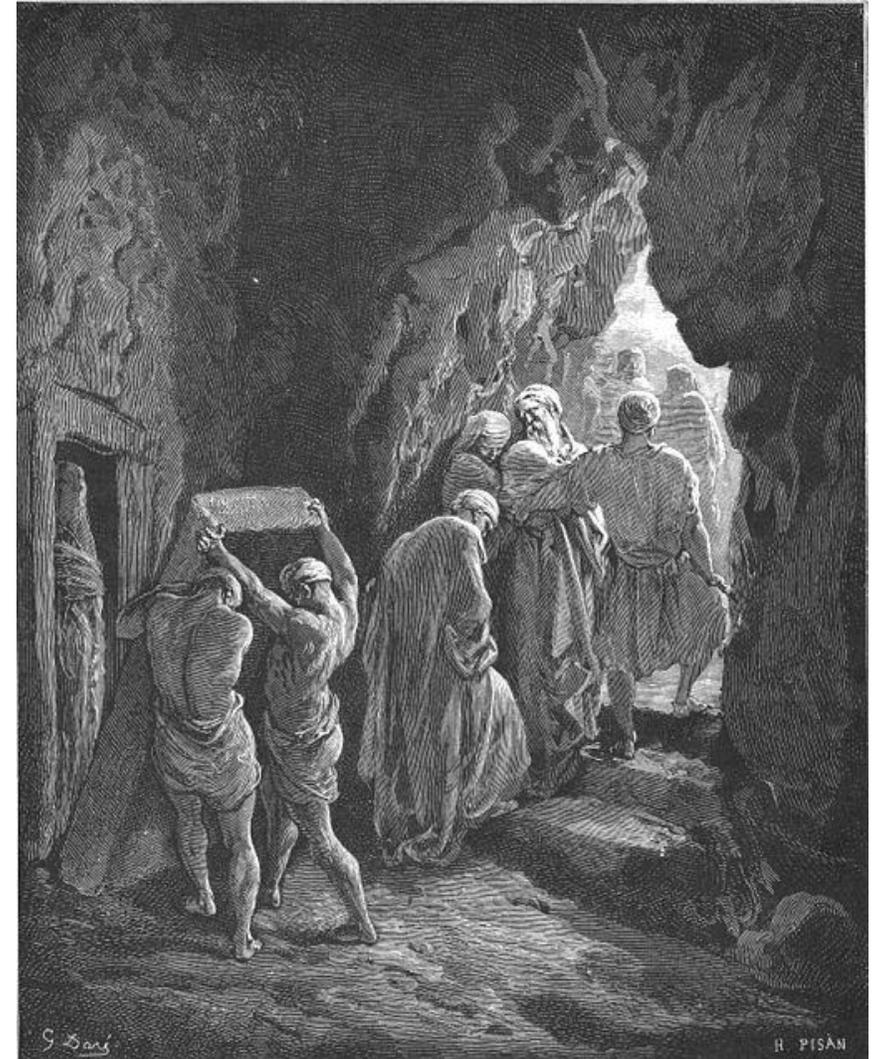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창세 22,14)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 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 세바에서 살았다.”(창세 22.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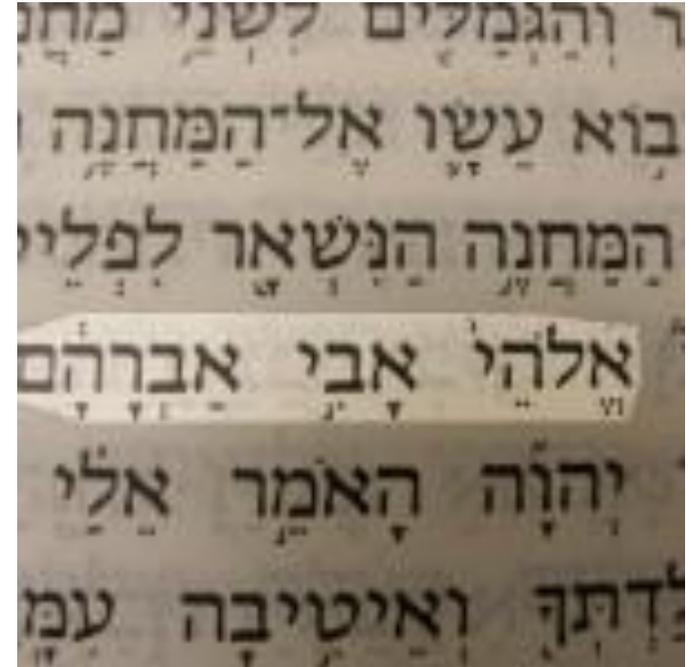
“사라는 백이십칠 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햇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창세 23,1-2)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은 사백 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 내어 주었다. 그리하여 마므레 맞은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창세 23,16-18)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창세 23,19-20)



“아브라함이 산 햇수는 백칠십오 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사악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마므레 맞은쪽, 히타이트 사람 초하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되었다.”(창세 25,7-10)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32,10)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 4,17)